



## [기고]'안정적 용수 공급'이 농어촌의 미래다

경남일보 | 승인 2026.05.27 18:47

조원득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지난 2025년 여름, 우리 창원 지역은 전례 없는 '물폭탄'이라 불리는 극한호우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당시 창원 지역의 지난 3년 평균 강수량은 약 1700mm였으나, 특정 기간 단 사흘 만에 연간 강수량의 30%가 넘는 5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시간당 100mm를 상회하는 극한의 집중호우는 기존 농업기반시설의 설계 한계를 시험하며 농경지와 지역 주민의 생

존을 위협했다.

이제 기후 위기는 더 이상 예외적 현상이 아닌 '일상화된 위험'이며, 이에 대응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 또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주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어떠한 기상악화 속에서도 안정된 농업용수의 공급과 재해 대비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집중하고 있는 선제적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 고도화다. 과거의 인력 중심 관리는 극한호우나 극심한 가뭄 상황에서 대응의 한계가 명확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ICT와 IoT기술을 결합한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 시스템을 통해 원격으로 수리시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작함으로써 신속한 재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예·경보 체계를 도입하여 수위 값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배수펌프를 가동하는 등 무인 자율제어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는 기상 이변 속에서도 농업용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공사의 핵심 역량이다.

둘째, '선제적 용수관리'를 통한 안정적 영농 환경 조성이다. '사후 복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적 투자'로 전환하고 있다. 노후화된 저수지와 양·배수장,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물에 대해 시기별 맞춤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용수로 누수 방지와 호우 시기 배수갑문 작동 장애를 막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정밀 점검과 시설 보수·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설관리를 넘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 걱정 없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공사의 실천이다. 또한, 벼농사에서 원예작물 위주로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여 양질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창원들녘 맑은물공급 사업을 시행하여 창원시 대산면 일대 약 380ha에 하천지표수를 정수 처리한 맑고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해 농산물 품질 개선과 농업인의 영농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셋째, 지역 공동체와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수자원 관리'이다. 기후 위기 대응은 공사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역 농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전문화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촌 현장의 문제점을 읽어내고, 복잡한 절차 대신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농업용수 공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대비한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격언을 새기며,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고객의 니즈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다. 2025년의 시련을 거울삼아 더 스마트하고 단단한 용수 공급망을 구축, 우리 농어촌의 생명줄이자 국가 식량안보의 근간인 농업용수를 지키는, 농어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경남일보

---

저작권자 © 경남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